

책임 있는 소통, 시설 문제도 시급한 현안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새롭게 우리학교를 이끌어 갈 제 17대 총장이 선임됐다. 김진상 신임 총장은 오는 2월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우리신문은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교수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A 교수는 교육 및 연구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A 교수는 “교수 1인당 연구 공간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반도 안 되는 것 같다”며 “학생 1인당 강의실 및 실험실 면적도 실제로 운용하기엔 모자라다”며 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B 교수는 열악한 국제캠퍼스(국제캠) 구내식당 환경 개선과 확대를 들었다. B 교수는 “현재 학생 식당은 품질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마저도 방학 중엔 한 곳만 문을 연다”며 “방학이나 학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식당이 기숙사나 단과대별로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C 교수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과 소통해야 하는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C 교수는 “학교 행정의 고위 책임자들은 무응답, 무시, 거짓말, 말 바꾸기 행태를 보여 왔고 이에 소통하지 않는 비겁한 행태를 보여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면 이러한 불통을 극복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책임 있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은 대부분 학업과 학교 만족도 상승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총장을 원했다. 이와 관련해 노후 건물 개선과 공간 확충을 꼽았다. 재학생 D 씨는 “건물 신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총장을 바란다”며 “시설과 디자인을 조금씩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장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더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캠 일부 노후화된 건물과 서울캠퍼스(서울캠) 정경대, 문과대, 생과대 등의 장기적인 캠퍼스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학생 E 씨는 법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총장, 중국인 유학생 문제에 적극적인 총장을 원하고

있었다. E 씨는 “더 이상 법인의 변인이 아닌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본인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총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 유학생 대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 씨는 “입학 기준을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많은 중국인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과연 학문의 전당으로서 마땅한 행동인지 모르겠다”며 “이들의 적응과 학습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며, 신임 총장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 씨 또한 학생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소통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적더라도 이러한 소통을 지속하거나 늘려가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학우들이 직접 만 들어가는 ‘대학’에 공감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동문 G 씨는 재정과 이원화 문제, 건물 노후 문제를 언급했다. “양 캠퍼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투자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학교 내 노후 건물의 안전도 평가가 위험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학평가 지표를 봤을 때 구성원 만족도 지수가 낮는데 이는 시설 정비처럼 학생을 향한 직접 투자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대외 협력이나 자금 조달과 같은 문제가 우선시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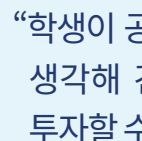
재학생 H 씨는 대학 내 존재하는 차별 해소와 공공성 실현을 요구했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에 책임이 있기에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대학으로 공공성을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내 인권센터는 타 대학 대비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작은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장애 학생지원센터 또한 계속된 지원 인력 부족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학생 입학 학과 제한 폐지,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등을 신임 총장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I 씨는 “직원은 교수, 학생과는 명확하게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 신임 총장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직원과의 대화, 격식 없는 수시 만남 등과 같은 공식적, 비 공식적 소통으로 대학 운영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명확하게

총장 숙원 사업에 대한 구성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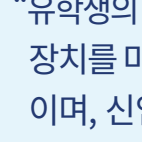
“정기적인 직원과의 대화, 격식 없는 수시 만남과 같은 소통으로 대학 운영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면 좋겠다”



“학생이 공부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생각해 건물 신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총장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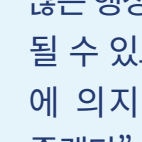
“양 캠퍼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학교 내 노후 건물의 안전도 평가가 위험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유학생의 적응과 학습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며, 신임 총장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에 책임이 있기에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대학으로 공공성을 넓혀야 한다”



“많은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 캠퍼스 구현에 의지가 있는 총장이었으면 좋겠다”

총장 숙원 사업에 대한 구성원 응답

전달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총장은 대화와 설득과 같은 부드러운 소통과 더불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직원을 이끌어주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여야 한다”며 도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면을 함께 가질 것을 강조했다.

직원 J 씨는 “각 구성원 단체와 만나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를 듣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구성원들 앞에 서약하고, 매년 이행 현황을 구성원에게 보고하며 재신임을 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어 “2년마다 직원 직접선거를 통해 행·재정부총장과 직원 교무위원 보직자 풀을 구성하고, 그중 적합한 교무위원을 총장이 배치해 선임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I 씨는 “매년 물가상승률 혹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임금인상 보장”과 “소수노조 개별교섭권 부여”, “비정규직과 용역직 정규화, 정규직 차별적 처우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학생 K 씨는 “전반적으로 경희대학교의 위상이나 기반을 튼튼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총장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신문 온라인 기사에는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극복하는 미래지향적 연구 중심 대학,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서울캠 조규영(미디어학 2021) 총학생회장은 “교육 시스템과 학교 건물, 환경 등이 잘 결합해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구성원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력 있게 이뤄갈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발전 방향을 빠르게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캠 김미소(한국어학 2021) 총학생회장은 “반도체 융합전공 사건 등 최근 대학 본부가 이원화 캠퍼스의 기준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내놓았다”며 “확실한 이원화 캠퍼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총장”을 바랐다. 이어 “많은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 캠퍼스 구현에 의지가 있는 총장이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교원, 직원,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총장을 언급하기도 했다.